

홀트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2014 가을 이야기

vol.175

www.holt.or.kr





가을 이야기

아이사랑곳간 첫 후원 학급이 있는 수원 매향 여자정보고등학교 2학년 4반 그중에서도 미혼 모 친구들을 돕고 싶다는 하우정(17) 양이 얼굴만 쳐다봐도 서로 까르르 웃게 되는 단짝들과 함께했어요.
- 왼쪽부터 박연희·김보영·하우정·심효선 학생 (p.26 계속)

사진 | 이정탁 사진작가 후원·Studio H2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75호·계간 **발행일** | 2014년 9월 22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조철행(자원개발실장), 홍미경(홍보팀장), 신미숙(후원팀장), 이수연(국내입양팀장), 이은정(해외사업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이창신(일산복지타운), 박소민(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주)아이디북 TEL: 02-6271-190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079 FAX: 02-331-7080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좋은 사연·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Contents

- 03 Holt Letter
- 04 **입양, 우리 품으로**
아이 덕에 남한에서 살기 더 좋아졌어요
- 08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늦어도 괜찮아, 건강하게 자라거라!
- 10 **Love In World**
썩네! 썩네! 대학생해외봉사단의 캄보디아 사랑 심기
- 12 **곳곳GoodGood한 엄마**
굳세어라 슈퍼맘, 함께 키우고 함께 응원해요!
- 16 **홀트 인터뷰**
나누면 배가 되는 행복의 이치를 많은 이와 공유하고자
- 홀트전국후원회 박영옥 회장
- 18 **기획**
다문화가족의 좋은 이웃, 3인 3색 희망 보고서
- 22 **나눔이웃 나눔기업**
선한 사랑과 우정
- 고운돌 자원봉사자 신수지·소나·문경혜
- 24 **희망 풍경 1**
우리가 함께한 날은 최고였어요!
- 탐리더스, 로티플 밴드
- 26 **희망 풍경 2**
저보다 어려운 사람도 돕고 싶었어요
- 미혼모자지원 후원자 하우정 학생
- 28 **희망 풍경 3**
두 가족을 가진 조셉 그리니의 기도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이사회 말리홀트 이사장 유창기 이사(기독교신문사 사장) 이해경 이사(서울복지재단 이사장) 임부웅 이사(HICS 수석고문)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복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홀트전국후원회 고문)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본부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02)331-7000 T.1588-750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2)331-7000 T.033)251-2344 T.031)217-5999 T.055)243-0009 T.062)227-8877 T.053)756-0183 T.051)465-0224 T.032)424-0145 T.063)288-0880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홀트학교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입양가정지원센터 홀트심리상담센터 전주영아원	T.031)914-6631 T.031)915-2911 T.031)929-1400 T.051)543-2431 T.031)790-2900 T.053)746-7501 T.051)760-3600 T.053)563-1007 T.033)251-8014 T.02)3142-5482 T.053)795-4300 T.031)790-2966 T.02)6938-5550 T.053)627-8875 T.063)222-1559
대구여린이집 마포여린이집 중동여린이집 홀트여린이집 하남은방울여린이집	T.053)746-7504 T.02)334-4743 T.02)375-6755 T.031)217-0437 T.031)790-2970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고운돌·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아름들 www.holtarum.or.kr 아침들·아침들학교 www.achim.or.kr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대전클로버 www.achim.or.kr/sub08/sub08_1.php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T.031)216-9004 T.02)334-4614 T.042)585-3004 T.02)322-3325 T.042)583-4006 T.053)654-0181
해외원조사업 캄보디아 사무소(홀트드림센터) 몽골 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T.070)4006-4116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설립되어 소외된 아동·장애인·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며 전국 10개 사무소를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맘 흘린 보람으로 풍성한 열매를

홀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마음이 조금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희망을 노래하면서 출발한 봄과 찌는 듯한 더위의 여름에 허덕일 새도 없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벌써 결실을 기다리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맘 흘리며 노력한 만큼 결실로 돌려준다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면 이번 가을에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정성을 가다듬고 노력한다면 흘려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잡아봅니다.

여름 동안에는 해외입양인 모국방문단 여러 팀이 방문하면서 뿌리 찾기와 모국을 알리는 일에 주력했고,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모국을 찾아오는 해외입양인과 입양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7월 23일에는 대구 달서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식을 가졌으며, '영혼의 소리로' 홀트장애인 합창단의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에 홀트의 존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인천에 복지센터 건립을 시작했으며, 광주 역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미혼모들을 위해 대구에서 운영 중이던 '사랑들'을 미혼양육모시설로 전환해 '대구클로버'로 명칭을 바꾸고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홀트에서 운영 중에 있는 다른 미혼모자시설도 내년 7월부터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모시설로 변경해 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캄보디아, 몽골에 이어 내년부터는 탄자니아에 아동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60년 전에 미국인 해리 홀트 씨 부부로부터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큰 기관으로 성장해왔으므로, 앞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더 어려운 나라의 아동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해외입양인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심을 많이 쏟았다면 앞으로는 국내입양인과 입양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홀트를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을에 홀트 가족 모두가 맘 흘린 보람으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대열 드림



아이 덕에 남한에서 살기 더 좋아졌어요

수년 전 고기잡이배를 타고 남한으로 왔던 새터민 가족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배의 선장이었던 장혁철(32) 씨가 가정을 이루고,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네 인기 스타인 아들 진영이(15개월)로 인해 유명세는 더해가고, 남한 생활이 한결 행복해졌다는 특별한 새터민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합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활발한
진영이, 아빠 등에 타고 찰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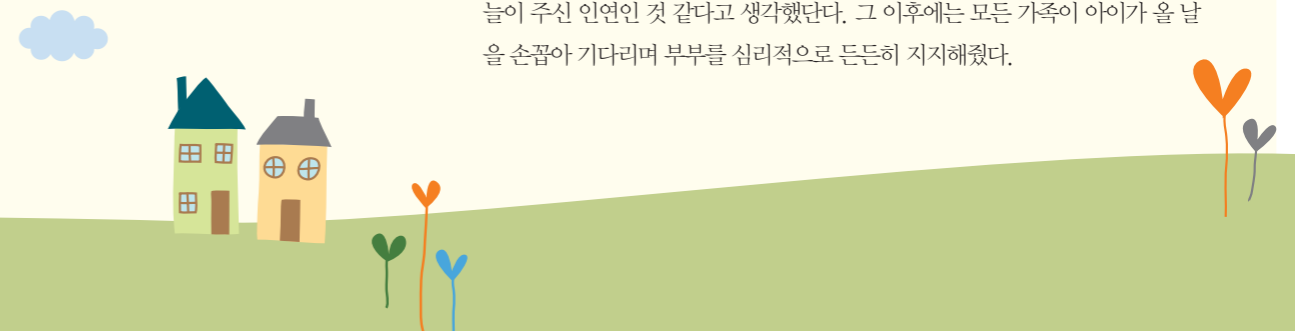


동네 인기 스타 진영이 덕분에 이웃들과 화기애애

낮을 가리지 않는데다 방긋방긋 웃으며 벌써부터 애교도 만만치 않은 진영이. 진영이가 춘천시 퇴계동으로 온 건 지난해 12월, 북한 이탈 주민 장혁철(32)·황순복(43) 부부가 가슴앓이를 한 뒤 드디어 재롱둥이 진영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것이다. 동네 인기 스타인 진영이가 떴다 하면 이웃들이 한 번이라도 안아보기 위해 너도나도 몰린다. 그래서 웬만한 어른들이나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진영이의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한다.

새터민이 남한에 와서 입양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본인 스스로 적응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따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승달 모양의 눈으로 웃으며 놀이터를 누비는 진영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진영이로 인해 이웃들과 더 친해졌다. 어쩌면 진영이 덕에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엄마 순복 씨는 “진영이를 입양할 때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진영이 덕분에 주민들과 화합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처음부터 부부는 ‘아이 사진을 보자마자 내 아들이다’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입양 진행 과정에서 태몽도 꾸었다고 한다. 그러나 입양 전에는 시부모 및 가족들이 입양을 반대하기도 했던 가슴 아픈 때도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도 잠시... 해맑게 웃는 아이 사진을 본 후 친척들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았고, 다들 하늘이 주신 인연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가족이 아이가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부부를 심리적으로 든든히 지지해줬다.



북에서 남으로 오기까지...
그리고 또 다른 난관

북한과 태국에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2007년 남한에 정착한 황순복 씨는 2009년 추석 무렵 가족과 함께 탈북한 남편 혁철 씨와 처음 만났고, 결혼 하게 됐다. 장혁철 씨는 남한 주민들은 햇빛고 굶주린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던 모친과 여동생에게 고기잡이배에서 식사와 빨래할 일손이 필요하다고 둘러대 승선하도록 한 뒤 NLL을 넘어 주문진항에 입항했다.

부푼 꿈을 안고 터전을 이뤄가던 남한. 사실 남한에 오기 전까지 입양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었다. 북한 사회에는 우리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없으며, 어느 집 아이가 돌봄이 필요하거나 부모가 없다면 데려와 보안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입양 절차를 마치는 정도다. 참전용사나 전쟁공로자들에게는 식량이 배급되지만, 이마저도 일주일 정도 먹으면 없을 만큼의 소량이라 하니 주민들의 어려움이 어떨까 짐작된다.

이렇게 북한과는 다르게 입양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의 일로 여기고 살았던 부부. 그러던 중, 그들은 난임으로 인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의에 빠지게 됐다.

힘든 기다림 끝에
맞은 행복

이후 시험관 시술도 4차례나 시도했던 부부는 결국 이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입양을 결심했고, 두 부부를 잘 아는 교회 집사님이 홀트를 통해 입양할 것을 권유했다. 두 사람은 탈북자 신분이라서 입양이 어렵지는 않을까 염려도 했지만 첫 상담을 거친 뒤, 편안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입양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허기는 되지 않았고 어느덧 아이는 훌쩍 자랐다.

부부는 상담자와 법원을 오가며 애를 태웠다. 그러다 드디어 아이가 10개월이 될 무렵 입양 허가가 떨어졌다. 두 사람은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지만 지금은 기다림이 컸던 만큼 기쁨이 두 배라며 미소 짓는다.

진영이는 남달리 개구진 편이어서 온종일 뛰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등 장난이 심하다. 순복 씨는 이런 진영이와 전쟁을 벌이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지만, 아단을 맞지 않으려고 재빨리 다기와 눈웃음치며 뽀뽀하는 아이의 애교 때문에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낸 진영이는 얼마 전 돌생일(북한 표현) 잔치를 했다. 하객은 직장 동료들, 교회 식구들, 지인들, 그리고 북한에서 함께 온 가족들이었다.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었던 부부는 이제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고 한다. 그리고 셋이 아닌 넷으로 더 꼭 차고 알찬 가족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바로 내년 2~3월쯤

진영이 동생을 입양하려고 계획 중인 것. 다만 아직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아빠는 진영이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아내를 위해 딸을 키웠으면 하고, 엄마는 둘째가 진영이와 마음껏 몸싸움도 하며 성장하려면 남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진영이네 집에서 개구쟁이 동생이 형과 뒤엉켜 씨름도 하고 물놀이도 하는 또 다른 행복한 모습을 기대해본다. #107

글 _ 이재송 소장 · 강원사무소



진영이 돌잔치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늦어도 괜찮아, 건강하게 자라거라!

아이의 1년은 어른의 10년. 그만큼 아이의 발달은 하루하루 다르고 그 중요성도 크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 속에서 유독 이 아이가 늦된 이유는 뭘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나아질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애쓰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위탁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 중, 인지·언어·신체 발달 등에 문제가 있는 의료아동들을 만나봤다.

슈퍼 에너지이저, 수혁



돌이 지났는데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서 여간 애가 탄 게 아니었다는 수혁이(가명, 19개월)의 위탁모 이경순(63) 씨. 하지만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쉬지 않고 미끄럼틀을 오르내리고 비누방울을 쫓아 이리저리 뛰어다녀 선생님들을 녹초로 만드는 이 초롱초롱한 아이의 눈빛은 놀이공간 안에서 노는 어느 다른 아이들보다 푹푹해 보였다. 어린 나이인데도 힘이 세고 다부진 체격의 수혁이는 걸음으로 보기에 무척 건강하게 보이고,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돌이 지나도 걷지 못해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 지금은 한쪽 다리를 조금 끌긴 하나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언어. 언어 수준이 7~8개월에도 못 미칠 정도로, 말을 알아듣기는 커녕 '엄마', '아빠'도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 언어치료가 시급하다. 게다가 최근 수혁이는 뇌성마비 판정을 받아

앞으로 여러 치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위탁모는 아이의 인지발달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 물리치료, 일주일에 2번 인지·신체 발달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그나마 지금 정도의 수준에 달하는 효과를 봤다고 한다. 앞으로 언어·인지치료를 일주일에 2회 추가로 다닐 예정이다. 수혁이는 낮을 안 가리고 밝은 성격에 남한테도 곧잘 안기곤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지가 느리고 학습능력이 낮다. 특히 위탁모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목욕을 시킬 때, "일어나"라고 말을 해도 좀체로 일어나질 않아 애를 먹곤 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걷는 것조차도 물리치료를 받아서 겨우 걷게 되었으니, 이제 인지 및 언어치료를 잘 받아 슈퍼 에너지 이저 수혁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길 모두 기대하고 있다.

차분하게 천천히 뒤따라 걸어오는 아이, 준이



준이(가명, 43개월)는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 있었기에 처음부터 기는 것도 서는 것도 늦게, 말도 모두 늦게 트였다. 낮을 가려서 처음에는 조용히 미끄럼틀 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던 아이.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수줍어하면서도 천천히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위탁모 박윤미(51) 씨는 아이가 또래랑 많이 놀 수 있게 홀트에서 연계해준 집보리에도 데려가고, 물놀이나 낚시놀이 등의 놀이를 통한 발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가르치기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자전거 타기나 물놀이 등을 하면서 인지발달에 계속 신경 쓴 것. 특히 집에서는 같은 동요를 반복해 들려주면서 따라 부르게 하는 방법 등도 쓰고 언어치료도 해봤다.

대화를 할 때는 아이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오늘 밥은 뭘 먹었니?" 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묻곤 하는데, 어휘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 복잡하고 긴 문장은 구사하기 어렵다. 하지만 준이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차분하고, 항상 엄마를 잘 따르며, 말도 잘 듣고 착한 편이라 키우기가 쉬웠다.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또래에 맞는 수준의 언어 능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 잘하는 여자아이들과 함께 놀게도 해봤는데, 아이가 "됐거든?" "짜증나!" 같은 여자애들이 자주 쓰는 말을 배워오기도 해서 당혹스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줍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귀여운 말투 때문에 웃음을 참을 수 없기도 했다. 이렇듯 한 명씩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사랑스럽기만 한 우리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거나, 크고 작은 장애가 있을 시에는 가정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이렇게 해맑고 귀여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자라나서 꼭 행복한 가정을 찾을 날이 오길 기도한다.

미소로 세상과 소통하는 아이, 건우



물리치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으앙~" 울음을 터뜨리는 건우(가명, 35개월). 아픈 거 아니고 아무리 달래도 좀처럼 물리치료 선생님과 위탁모 조민숙(54) 씨의 말을 안 듣고 도망다니다 이윽고 치료를 위해 바닥에 앉혀졌다. 다리를 조금 만졌을 뿐인데 소리를 질러 오늘 촬영은 무리겠다 생각하던 즈음, "사진 찍어줄까?" 하는 말에 눈물이 그렁한 채로 손가락으로 브이를 만들며 씨익 웃는다. 그 모습에 물리치료 선생님과 위탁모는 웃음이 터졌다. 엄살쟁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건우는 그렇게 주위를 밝히는 에너지를 가졌다.

치료실 내에 있는 장난감들을 이리저리 만지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탐색하며 다니는 건우. 이렇게 활발한지라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 건우는 왼쪽 뇌의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가 와서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부산하게 뛰는 걸음걸이에서 부자연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뇌성마비 때문인지 건우는 또래에 비해 언어발달이 많이 늦었다. 그래서 물리치료와 함께 언어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 언어치료 후엔 차차 나아지고 있어 말을 알아듣고, 간단한 말들을 하게 됐다고 한다. 아직 문장을 완성해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더없이 밝고 개구진 건우는, 사람을 좋아해서 함께 어울리길 좋아한다. 말은 늦지만 건우는 천진한 표정과 해맑은 미소로 이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HIT](#)

글 _ 팍소민 · 홍보림



지난 호에 소개되었던

두개골 조기유합증으로 수술을 했던 미소천사 시현이. 이제 수술도 잘 끝났고,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따뜻한 가정의 품에 안겼습니다. 시현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싹트네! 싹트네! 대학생해외봉사단의 캄보디아 사랑 심기

캄보디아 프놈펜의 트라피앙 안찬 마을에 스톨란홀트가 뿌린 또 다른 사랑. 아이들의 웃음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봉사단에게 캄보디아는 어떤 그림으로 남았을까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홀트대학생해외봉사단 스톨란홀트와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싹트운 사랑이 가득한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스톨란홀트, 체계적인 사전 프로그램 준비

오리엔테이션 날, 전국 각지에서 뽑힌 저희 대학생해외봉사단은 처음 만났습니다. 어색함이 감도는 분위기도 잠시, 젊은 패기와 정신으로 모인 봉사자인 만큼 한 명 한 명, 모두가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고민하던 중 학생들과 먼저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전체 프로그램 속에 '친밀도 형성'을 주목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체육·음악·미술·의료·영상팀으로 나뉘서 조장의 지도에 따라 각 팀별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우리의 여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과 올바른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한 달의 준비 기간 동안, 10회 이상의 조별 모임과 3번의 전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봉사단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3차례의 조장 모임을 진행한 결과, 드디어 만족스런 결과가 예상되는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우리들의 사랑

캄보디아 도착 당일, 기대에 부푼 저희들의 눈에 띈 것은 공허한 별판, 다닥다닥 붙어 있는 판잣집과 양철지붕집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물러서지 않고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패기를 서로에게 보여줬습니다.

모든 활동에 앞서 청결과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첫 번째 수업은 '손 씻기'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연극을 보여주며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먼저 흥미를 끈 뒤, 직접 실천하는 것까지 도와줬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이 한 번의 수업으로

잘 따라줄까 싶기도 했지만 봉사단이 떠나기 전, 우리가 수업했던 그대로 손을 씻는 아이를 본 순간 우리의 노력이 열매 맺은 것 같아 가슴 뿌듯했습니다.

미술팀은 '하트 접기, 잡지를 이용한 '모자이크 수업'을 진행했고, 영상팀은 부지런히 홀트드림센터 안팎을 돌아다니며 아이들과의 소중한 기억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중 홀트드림센터수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음악팀 수업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좋은 노래 '싹트네'와 'Hold over flow with love(원곡-예수님 사랑이 넘쳐요)'라는 노래에 맞춰 재밌는 율동을 곁들여 즐겁게 춤을 추며 하나가 되던 순간들. 바지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던 선생님과 환호성을 지르며 발을 구르던 해맑은 아이들 모두가 하나 되는 희열을 경험했습니다. 체육팀 역시 능률한 도복 차림으로 태권도 시범을 보이며 아이들에게 열심히 태권도를 가르쳤고, 아이들도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어색한 동작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마치 스피너가 물을 흡수하듯 수업에 따라줘서 고맙고 보람있었습니다.

뜻밖의 난관,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사랑 하나라면...

홀트드림센터에서의 활발하고 체계적인 수업 진행으로 인해 아이들과 친밀도가 상승했으며, 저희 또한 모든 활동에서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친해지기 시작한 저희들이 겪게 됐던 고난은 바로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온 프로그램을 모두 전해주고 싶었지만 언어의 장벽은 너무나 컸고, 운동회 당일 급격하게 늘어난 참여 인원으로 통제 불가능의 상황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에게 맞추는 수업을 하자는 회의 결과가 나왔고, 아이들과 함께 그들의 놀이에 참여하기 위주로 갔습니다. 하지만 현지 매니저인 룡다(Langda) 선생님이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고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은 좋으나, 지금 프로그램은 익숙한 놀이라 더 발전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기도 한 팀원들은 속상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회의를 열어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온 우리에게 힘듦이란 없으며, 이 덥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향한 사랑 하나만 있다면 아이들에게도 우리 마음이 통할 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힘을 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체계적인 계획으로 수정하고 팀을



1 아이들이 좋아하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함께하며, 2 음악시간 신나게 춤추며 하나가 되던 우리들, 3 체육시간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달리던 아이들, 4 의료팀의 손 씻기 위생교육 시간

조정했고, 기존에 준비해왔던 아이들의 순발력과 상황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거미줄 빨리 넘기', '기마전', '판 뒤집기', '물 옮기기' 등을 진행해서 매니저 룡다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참여 학생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들으며, 한 편의 드라마 같았던 운동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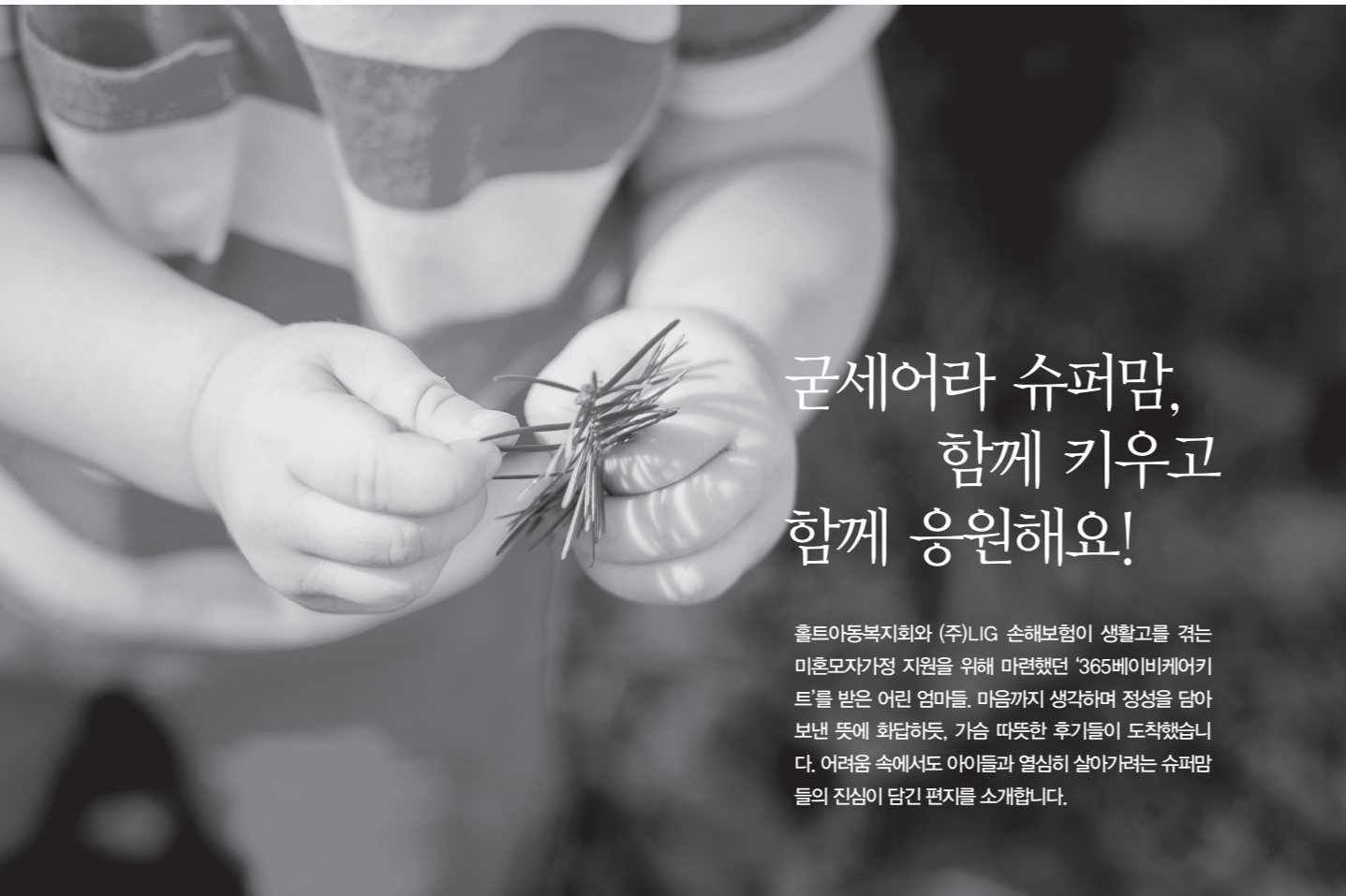
봉사란 사랑을 전해주고, 고마운 마음 하나를 선물 받는 것

캄보디아로 떠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대식만을 기다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모든 활동을 아무 탈 없이 마치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추억을 쌓고, 사랑을 받았으며, 또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꼈기에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봉사란 뭘까? 항상 봉사활동을 해도 '내가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뭘까?' 생각했습니다. 물질적 후원, 식사 제공, 환경미화 등이 모두가 봉사라 할 수 있겠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전 진정 한 봉사란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의 고마운 마음 하나를 선물 받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고 계획대로 이뤄졌기에 이번 봉사가 의미 있고 행복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과 말이 아닌, 그보다 진실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아이들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기에 모두가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HLT

글 _ 손용기(세종대 체육학과 1학년) · 스톨란 홀트 단원대표



곧세어라 슈퍼맘, 함께 키우고 함께 응원해요!

홀트아동복지회와 (주)LIG 손해보험이 생활고를 겪는 미혼모자가정 지원을 위해 마련했던 '365베이비케어키트'를 받은 어린 엄마들. 마음까지 생각하며 정성을 담아 보낸 뜻에 화답하듯, 가슴 따뜻한 후기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가려는 슈퍼맘들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소개합니다.

사랑과 기도,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365베이비케어키트



'365베이비케어키트'는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자라나, 세상을 더 밝게 웃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홀트의 소명과 (주)LIG에서 (주)LIG 손해보험으로 이어진 따뜻한 후원으로 시작됐습니다. 2013년, 빈곤과 편견으로 아기의 분유값을 걱정해야 하는 어린 엄마들을 응원한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 한 달분의 아동양육물품을 넉넉히 담은 '365베이비케어키트'를 만들어 825가정에 도움을 손길 건넸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단기 지원과 장기 지원가정을 선별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에는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0kg를 육박하는 큰 선물상자는 2차에 걸쳐 참여해준 (주)LIG 손해보험 가족 봉사단을 비롯한 70여 명이 넘는 봉사자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분유·기저귀·물티슈 등 육아용품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한 편지와 기도하는 진심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심에 보답하듯 속속들이 도착한 편지들, '365베이비케어키트'를 받고 힘을 얻고 희망을 되찾았다는 여러 짙한 사연들에 절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어린 엄마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은 조금 더 달라지고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당한 엄마가 되겠습니다

박하연(가명, 22세)



똑똑똑! 기다리고 기다리던 키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박스가 너무 커 놀라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상자 가득한 물품들을 보고 엄청 좋아서 저도 모르게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아기를 가진 뒤 우울증이 오고 제대로 생활이 안되던 시절, 미혼모 인터넷 카페를 통해 '365베이비케어키트'를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오래 정신적으로 아프셨던데다 맘이로 자라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막중했기에, 본보기가 되어야 할 제가 미혼모가 되었다는 걸 차마 가족들에게 밝힐 수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해보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부모님께 연락이 간다고 해서 한부모가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한부모에 대해 아직 열악한 환경인 우리나라, 실질적인 도움은 부족하고 까다로운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365베이비케어키트'를 신청할 당시 아직 미혼모자시설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키트는 저에게 너무나 큰 힘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키트를 후원해주신 LIG와 홀트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희망을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면 사람들을 돕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현재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는 것 자체가 칭찬받아 마땅하며 떳떳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을 해줬던 사회복지사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앞으로 혼자 헤쳐나가야 할 이 세상. 때론 무섭고 막막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이유, 아기들을 보며! 모두 힘내서 당당한 엄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윤아(가명, 27세)

저는 28개월 남자아이와 7살 여자아이 둘을 키우며 인천에 사는 두리모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감사해 잠이 오지 않는 이 밤, 제게 주신 온정이 느껴져 눈물이 글썽여지네요. 홀트와 LIG에서 보내주신 '365베이비케어키트' 상자가 커서 아이들이 들어가 노는 좋은 놀이터가 됐습니다. 상자 가득 정성을 담은 것도 모자라 응원의 편지까지...

저는 육아용품 그 이상의 것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고, 또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하고자 저는 미성년 미혼모의 길을 선택해 일, 학업, 육이를 병행했습니다. 큰아이가 7살 되던 때, 좋은 사람과 가정을 꾸려보려고도 했지만 또 다시 홀로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이지만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 신학 공부 중이며,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린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로 이민 가서 유학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일에도, 아이를 키우며 공부를 하는 일에도 말이 많습니다. "재혼하지 마. 남자 만나서 애 또 낳으려고?" "공부? 애 엄마가 애 봐야지"... 더한 말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학업의 길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함이었습니다.

큰딸에게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어, 너 아빠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네게는 슈퍼맘이 있다고 말하면 아이들은 웃습니다. 이 웃음소리가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앞으로 제 아이들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삶에 만족하며 타인을 돕고 살아가는 가슴 뜨거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로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셨는데 그것이 나무가 될지 꽃이 될지 기대해주세요.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키트 상자
놀이터로 변신!



힘든 삶에 뜨거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세진(가명, 20세)

저는 3개월 정도 되는 딸을 키우는 미혼모입니다. 작년에 한 미혼모 시설에 입소했다가 퇴소한 후, 아는 언니의 가겟방에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입양보다 양육을 결심했습니다.

제 경험상 뭐든 가르쳐주고 사랑해주는 엄마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고 싶었으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부모양육비 35만 원으로 기저귀, 분유, 아기용품 등을 사고 나면 배고파서 아는 언니 집에 가서 밥을 청해 먹고, 안 좋은 기저귀를 쓰다가 오줌이 많이 새서 옷이 남아나질 않기도 했으며, 그마저도 떨어지면 천기저귀로 버티기도 했죠. 게다가 아이가 잘 먹어서 분유 값도 많이 들어가 감당하기 벅했습니다. 가끔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밥 먹고 배불러서 기분 좋아하는 아이를 볼 때는 뿌듯해서 힘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소개로 '365베이비케어키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원을 받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물질적인 위로도 큰 힘이 됐지만 물품과 함께 주신 <살아 있는 뜨거움>이란 책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책에는 '인생은 각자에게 늘 처음일 수밖에 없어, 늘 아쉽고 아프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써 있었는데, 이 문구를 보며 저만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불안한 건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됐고,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이버대학교에서 자격증도 따고 어린이집에서 일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온 제 자신이 또 같은 처지에 있을 당신에게 전하는 말은, 당신이 누가 됐든 주어진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이겨낸다면,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도 분명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가는 강한 아이로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린 엄마들 모두 다 같이 파이팅을 외쳐요!



'꽃꽃GoodGood한 엄마' 캠페인 후원

1899-0923 / 02-331-7075
www.holt.or.kr

'꽃꽃GoodGood한 엄마'는 미혼 양육목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꽃꽃하고 Good(좋은)한 엄마로 살아가길 희망하고 응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양육목들이 더욱 꽃꽃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글 _ 객소민 · 홍보팀



나누면 배가 되는 행복의 이치를 많은 이와 공유하고자

- 홀트전국후원회 박영옥 회장

홀트에 있어 후원회는 언제나 든든한, 그리하여 더없이 고마운 '동반자'다. 홀트와 뜻을 함께하는 벗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올 초 홀트전국후원회(16개 자부·회원 350여 명) 리더로 취임한 홀트전국후원회 박영옥(70) 회장은 말한다. 나눔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나눔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

1997년 홀트와 처음 인연을 맺은 박영옥 회장은 본래도 나눔에 적극적이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등록금을 대신 내어주곤 했다는 교육자 아버지, 아이를 받으러 갔다가 포대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세를 보곤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으라며 오히려 쌈짓돈을 놓아두고 오셨다는 조산사 어머니, 평생 독신으로 사시며 고아원을 운영하셨다는 이모님 등 나고 자란 환경이 나눔과 밀접한 덕이었다.

“더불어 삶에 있어 나눔은 생활의 질은 물론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단초라는 사실을 몸소 실천해 보으신 부모님과 친지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해요. 그런 모습을 지켜봐오신 35년 지기 서영자 고문님이 홀트의 가족이 되어줄 것을 권하셨고 저는 흔쾌히 손을 잡았죠. 영광스런 기회인데 망설일 필요가 있나요? 지금도 서영자 고문님이 해주신 제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눔 때, 비로소 인생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곤 한다는 박영옥 회장은 홀트전국후원회 일원으로 활동해온 지난날을 회상하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는다. 바자



1 18번째 홀트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박영옥 회장.
2 홀트 바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박영옥 회장. (가운데)

회, 일일찻집, 경매, 성년입양인 모국 전통문화 및 음식 체험 등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추억이 없다는데... 박 회장은 특히 (홀트)일산복지타운 봉사 시 만난 청년이 기억에 남는다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었죠. 나름대로는 조심해서 식사를 챙긴다고 노력했지만 누운 채로 음식물을 삼키려다 보니 사례가 든 거예요. 비장애인도 음식을 삼키는 중에 사례가 들면 괴로운데 몸도 불편한 청년이 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재채기와 더불어 음식물을 뱉어내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죠. 결국 앞에 앉아 있던 제가 밥풀이며 갖은 반찬을 뒤집어쓰게 됐는데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였냐고요? 청년의 눈빛을 읽었으니까요.”

청년은 말하고 있었다. ‘죄송하다’고... 너무나 미안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청년의 속내가 말간 눈동자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언어로 의사를 전달받을 수는 없었으나 그것은 분명히 청년의 진심이었고 박영옥 회장은 이를 가슴으로 알아차렸다.

“잘못한 사람은 나인데 되레 사과를 받아 마음이 미어지는 듯했죠. 그래서 데!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웃어 보이며 얼굴을 닦았답니다. 정말로 아무렇지 않았으니까요.”

홀트의 이념에 충실한 행보 펼칠 것

홀트전국후원회 활성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박영옥 회장. 무엇보다도 미혼모를 위한 사업에 애착을 보인다. 엄마가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긴급적이면 만들지 않고 싶다는 것이 박 회장의 설명. 가정의 평화가 곧 사회의 건강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입양대상 아동 양육후원 역시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를테면 여건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포기하게 됐다는 엄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꾀하는 일자리 연계, 엄마로서 갖추어야 할 마인드 교육 등 미혼모가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죠.”

나이가 박영옥 회장은 나눔을 대단한 행위로 인식하는 오해나 편견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한다. 나눔을 행하는 데 있어 별도의 결심은 필요하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어깨를 당장이라도 따뜻하게 두드려줄 수만 있다면 당신의 나눔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그러니 거룩하거나 위대하거나 어렵다고 여기지 말아달라고.

내년이면 마흔두 번째 생일을 맞게 되는 홀트전국후원회. 열정을 넘어 완숙의 미로 새롭게 태어날 홀트전국후원회의 내일이 무척이나 기대되는 시간이다. **홀트**

“ 나눔을 행하는 데 있어 별도의 결심은 필요하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줄 수만 있다면 당신의 나눔은 이미 시작된 것. ”

다문화가족의 좋은 이웃, 3인 3색 희망 보고서

낯선 한국 땅에서 평범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기를 꿈꿨지만, 생각지도 못한 시련과 아픔을 겪어온 다문화가족들이 홀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중 취업 및 자립지원 실태를 알아보고, 다문화가족의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는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만난 3국, 3인의 사례자들로부터 함께하는 문화 속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자립을 키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제는 다문화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온 다문화가족들의 모습.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 우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3년 행정안전부의 통계로 보면 총 28만 1천 3백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을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7개 광역 시도별 총 211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개인·가족 상담, 정보 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총 이용 연인원은 167만 8천 9백여 명으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한국어 교육 76만 5천 6백여 명(45.6%),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50만 4천 8백여 명(30.0%), 다문화가족 취업 연계 및 교육 지원 16만 9천 8백여 명(10.1%) 순으로 나타났으나 기본사업의 실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연계 교육에 결혼이민자들의 참여가 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취업과 자립에 대한 그들의 소망과 노력을 엿볼 수가 있다.

사업영역	합계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외	결혼이민자 이용률(%)
한국어 교육	26,837	25,533	1,304	95.1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92,689	47,862	44,827	51.6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 지원	13,881	13,756	125	99.0
소계	102,679	56,964	45,715	55.5

*자료_ 2013 결과보고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하지만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비율이 3년 전보다는 감소했으나 전체 17.8%를 차지하고 있고(2009년 25.5% → 2012년 17.7%) 일자리 또한 단순노무직, 일용직 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의 빈곤 완화는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할 부분이다. 홀트이동복지회에는 이렇게 증가하는 다문화가족들의 복지 요구에 발맞추어 일찍이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마포구,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결혼이민자들의 정착과 가족생활을 전반적으로 도와왔다. 또한 다수 빈곤가정들을 위한 취업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교육자재를 구하기 위한 후원 요청과 감사 섭외, 한국어말이 서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는 그들의 열정으로 다문화이해강사 파견과 통역·번역가 양성 등 출신국 특성을 살린 인재 양성과 재능과 관심 분야 중심으로 바리스타 교실, 제과제빵 교실, 정보화 교육, 다문화강사 양성반 등 다양한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혼, 남편의 죽음... 시련 딛고, 파티쉐가 되기 위해!

베트남에서 어렵게 한국에 와 한국 남편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 잦은 음주문제로 이혼한 누엔티(가명, 29세, 베트남) 씨. 하지만 2명의 자녀 때문에 남편과는 계속 연락과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2014년 봄, 자녀들과 함께 베트남에 다녀온 날 누엔티 씨의 집 화장실에서 남편이 죽은 채 발견됐다.

그녀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2명의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 생각하고 곧장 취업을 위해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창업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취미로 수업을 듣는 보통의 수강생들과 달리 누엔티 씨는 오로지 아이들과 잘 살아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기에,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안정적인 직장, 어린이집에서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서 끝날 수 있는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어떤 일이 맞을까 고민하던 그녀는 평소 요리에 소질이 있고 관심이 많다는 데 생각이 미쳤고, 그래서 제과제빵을 선택하게 됐다. 현재는 필기·실기시험 등을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누엔티 씨의 꿈은 오로지 하나! 두 딸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는 것이다. 아직 직업을 가지진 못했지만, '다문화이면서 한부모가정인 곳에 꼭 쓰이길 원한다'는 홀트의 뜻 있는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한부모 가정지원을 받고 있어 어렵지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직도 아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못내 애처롭다는 누엔티 씨.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드리운 삶의 그늘에서 벗어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단단히 뭉쳐, 이 한국 사회 안에서 떳떳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까지
병들지는 않았어요,
늦깎이 바리스타의 꿈을 위해



신장투석 중인 나오미(가명, 49세, 일본) 씨는 기초수급대상자며 현재 무료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자녀는 3남 1녀, 남편과는 2013년 3월쯤 이혼하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나오미 씨가 치료를 받은 지는 18개월 정도. 생활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딸의 수입과 장애연금 약 50만 원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둘째 아들을 대학에 보내지 못한 게 마음 아파 눈물을 보였던 그녀. 그런 막내 아들을 위해 현재 홀트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제일 걱정은 나오미 씨 본인이다. 병으로 인해 기력이 떨어져 직장에 다니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면 2~3일 정도 온몸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지만, 센터에서 바리스타 취·창업 교육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상태를 보았을 때 장녀에게 주어지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커 보였고, 나오미 씨 역시 장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일찍 철이 든 장녀의 꿈은 오히려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남동생의 '대학 진학'을 꼭 이루어주고 싶다는 것.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아파도 서로를 지극히 생각할 줄 아는 4명의 자녀와 살아가는 나오미 씨는 오늘도 아직 희망은 있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중이다.

한국에 먼저 적응한 언니로서,
이민자들을 돕고 농업 발전에
기여한 억척 엄마

1남 1녀의 자녀와 사는 줄리에(가명, 40세, 필리핀) 씨는 매일 오전 6시면 남편과 자전거를 타고 밭으로 나가 밤새 자란 농작물을 살피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부부는 13년간 토마토, 배추, 무, 옥수수 등을 친환경법으로 농사 짓고 있다. 비록 본인의 땅이 아닌 임대밭에 하는 곳이고 그렇게 생산된 채소를 팔면서 생계를 잇고 있지만, 소박한 삶 속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고 있는 줄리에 씨. 농사만 해도 하루의 일과가 벅찰 정도지만, 그녀는 틈틈이 주변 결혼이민자들에게 농사를 직접 가르치고 재배한 채소를 나눠주기도 하는 따뜻한 옆집 언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더운 지방에서만 재배되는 '암베레아' 등 동남아 채소를 재배하기도 해, 한국생활에 적응 중인 그녀는 초기 이민자들에게 만언니로서 다문화 가족들의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줄리에 씨의 훌륭한 면을 알리기 위해 올해 홀트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그녀에 대한 추천서를 제출했고, 이에 국내 농업 발전에 기여한 그녀의 노력이 인정받아 (재)한사랑농촌문화재단의 '제8회 한사랑농촌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1,000만 원 상당의 농업 지원금을 후원받았다.

이 지원금은 앞으로 더 좋은 농작물 수확을 위해, 모종과 씨앗 등을 구매할 자금으로 쓰인다고 한다. 줄리에 씨는 이 같은 수상에 감사하며 센터를 찾아와 자신이 재배한 상추를 나눠주기도 하는 정겨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주위와 작은 것도 나누고 농사에도 매진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 자칫 생활이 넉넉할 것이라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녀의 집 지붕은 반쯤 주저앉아 있고, 비도 새고 심지어 쥐가 나오기도 할 만큼 열악한 형편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이 집마저도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실정이라 담당 사회복지사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래도 4명의 가족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늘 행복하다는 줄리에 씨. 이 욕심 없고 소탈한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되길 바란다. **한**

글_ 강다남 사회복지사·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홀트아동복지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울) 02)3142-5027-8, 5018 <http://mapogu.liveinkorea.kr> |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춘천) 033)251-8014-5 www.damunhwa.cc |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구) 053)764-4317 <http://suseonggu.liveinkorea.kr>



홀트 고운뜰에서 선한 사랑을 전하는 누낙문화예술기획 대표 문경해·전 국가대표 리듬체조선수 신수지·플라멩코 무용가 소나.

선한 사랑과 우정

- 고운뜰 자원봉사자 신수지·소나·문경해

한부모가족 시설인 홀트 고운뜰에서 친구 같은 국가대표 체조선수 신수지(24) 씨가 산후체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찾았다. 여기에서는 선한 사랑과 우정이 함께 하는 기분 좋아지는 어울마당이 펼쳐졌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환호가 가득했던 고운뜰의 참 고운 풍경 속으로 함께 떠나본다.



1 아름다운 몸 만들기엔 열심인 엄마들.

신수지의 아름다운 몸 만들기 나눔 봉사

“애 낳을 것 같아...”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힘든 동작을 열심히 따라하는 옛된 얼굴의 엄마들. 그 옆에 친구처럼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선수 신수지 씨가 있다. 수원에 위치한 홀트의 한부모가족시설인 고운뜰에서 신수지 씨는 매달 또래 미혼모 친구들에게 산후체조 자원봉사를 해왔다. 미혼모들을 마치 친구처럼 대하며 노련하면서도 즐겁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신수지 씨. 아직은 멋도 부리고 싶고, 한창 예쁜 나이라 출산 후 몸매 관리에 다들 관심이 많은 어린 엄마들에게 신수지 씨는 복근운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짜서 출산으로 인해 처진 배를 탄력 있게 잡아주고, 전신 스트레칭을 통해 예쁜 몸매 라인을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고 했다.

그녀의 봉사활동은 사실 이번만이 아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자신이 대회에 썼던 경기용 리본을 기부하기도 하고, 유기견 보호 단체에 강아지 사료를 기부하기도 하고, 독거노인 배식 봉사도 하는 등 평소 다양한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기도 했지만 잘 따라주는 친구들이 고마웠다”며, 나이가 어린 만큼 몸이 상당히 유연한 친구들이 많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2 멋진 플라멩코를 선보이는 소나 씨.

신수지 씨. 소질이 있다면 필라테스나 요가 강사로 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다. 수지 씨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철도 안 든 아이가 자기 아기를 돌보는 것 같지만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한결같이 지극했고, 그 뜨거운 모성애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래의 친구들이라 더욱 마음이 각별하다는 그녀는 앞으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화생활을 통해 고운 심성 기르기

이날은 산후체조 시간 후 플라멩코 무용가 소나(34) 씨도 함께 해, ‘베사메무초’ 등과 같은 노래와 정통 플라멩코를 선보였다. 소나 씨는 고운뜰 봉사 이전부터 외국 유학으로 익힌 영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모국을 방문한 해외입양인들의 통역봉사를 했다고 하며, 아동복지 쪽의 봉사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나눌 때는 수줍은 미소를 짓다가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때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닌 소나 씨. 그녀가 작은 방에 함께 모인 미혼모들과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유도하고, 그 흥겨운 박자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 젖병을 물고 엄마 품에 안겨 있던 아기들도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넋을 놓고 바라볼 정도로 모두가 몰입했다. 비록 아기들의 기저귀와 육아 용품들이 한쪽에 놓인, 무대랄 것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건 세상 어디에서

도 다시 볼 수 없는 멋진 공연임에 틀림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낯을 별로 가리지 않아 친근하고 다가서기 좋았으며, 우리 사회가 미혼모라는 꼬리표를 달지만 않는다면 보통 아이들과 똑같고 다만 일찍 엄마가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열린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는 점이 못내 쓸쓸하다며, 이 어린 엄마들에게 ‘편견 없이 편하게 대해주는’ 작은 천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좋은 뜻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모인다

사실 소나 씨와 신수지 씨 등을 초빙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단국대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고 누낙문화예술기획 대표인 문경해(52) 교수다. 사실 문 교수와 홀트아동복지회의 인연은 이전부터 있었다. 2013년 11월 심이 있는 콘서트를 통해 신수지 씨가 사회를 보고 소나 씨가 춤을 추는 공연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기타리스트 이운정 씨도 선행을 함께해왔다. 문 교수는 상처받은 이들의 힐링을 위해 이러한 자리와 콘서트 등을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고운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음악과 춤 등 다양한 문화 영역이 어우러져 미혼모들이 대학 교양과목 수업을 미리 맛보는 계기로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소박하지만 우리 미혼모들의 지친 마음을 맑게 하고 위로가 되고 싶었다고, 앞으로도 선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작은 천사들은 그곳이 어디든 숫자와 상관없이 찾아가겠다고. ‘좋은 뜻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모인다’는 그녀의 말처럼 고운뜰에 모인 이 세 여성의 마음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한나**

글_곽소민·홍보팀





우리가 함께한 날은 최고였어요!

- 탐리더스, 로티플 밴드

홀트아동복지회의 고액후원자그룹인 탐리더스의 후원자가 재능기부 연주자로 변신했습니다. 일산복지타운 생활자들에게 매년 기다림과 설렘을 선물하고 있는 로티플 밴드(Royal Straight Flush의 약자)의 신나는 나눔 현장으로 달려가 봅니다.

일산복지타운 생활자들의 연예인, 로티플 밴드

소나기가 퍼붓던 토요일, 오전부터 일산복지타운 체육관에서는 공연 리허설로 멤버들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나듯, 기대에 찬 표정과 설렘이 가득한 얼굴을 한 일산복지타운 생활자들. 이제 곧 서로를 만나기 위한 무대가 펼쳐질 순간이 다가옵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야외 운동장에서 벌였을 이번 행사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체육관 지붕을 두드리는 세찬 빗소리마저도 흥겨운 리듬과 함께 어울리는 듯합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로티플 밴드! 특별히 이날은 뮤지컬, 영화배우로 활동 중인 송용진(38) 씨와 6인조 혼성그룹 하드슈가(Hard-Sugar)가 참여해 20여 곡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들 모두 로티플 밴드의 뜻깊은 활동에 대해 입소문을 듣고 흔쾌히 달려온 분들입니다.

탐리더스 후원자에서 드림 연주 재능기부로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로티플 밴드는 9명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2011년 권익도(46) 님은 취미생활로 기타, 드럼을 연주하는 직장인밴드에서 동호회 리더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탐리더스에 소속된 후원자이자 초대회장이기도 했던 그는 '후원 방법이 기부금을 내는 것밖에 없을까?' 생각하던 중 '내가 가장 잘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로 기부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마련, 드림 연주 재능기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1년 '의미있는 활동의 시작'으로 결성된 로티플 밴드는 비록 프로 밴드는 아니지만, 어느 톱가수 못지않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자!'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 둘 모일 때, 그 사랑과 나눔의 에너지는 배가 되었고, 그 결과 멤버들 스스로 즐겁게 참여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는 무대, 나눔이 곧 사랑

이날은 일산복지타운 생활자와 홀트학교 학생 2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들만의 축제였습니다.

"연주가 시작되고 하나 둘씩 앞으로 나와 신나는 리듬에 몸을 맡기는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오히려 저희 스트레스가 풀리게 됩니다."

밴드의 멤버들을 노래 언니, 피아노 언니, 드럼 오빠, 기타 아저씨로 기억해주는 홀트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는 로티플 밴드. 권익도 님은 "다양한 무대에 서봤지만 이곳은 정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무대였고, 이번을 계기로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로티플 밴드의 활동은 장애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후원은 절대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삶은 누군가와 나누고, 함께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 '나눔이 곧 사랑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로티플 밴드를 통해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또 내년에 있을 탐리더스 행사를 기다리며 로티플 밴드는 설렘 가득 찬 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로티플 밴드의 아름다운 노래가 세상 가득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글 _ 권혜란 사회복지사 · 후원관리팀



1 장애인 식사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2 "맛있어요?" 물으니 미소로 답하는 일산복지타운 생활자.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 미혼모지원 후원자 하우정 학생

자영업자와 교육기관들의 정기후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아이사랑공간'의 첫 후원 학급이 있는 수원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그곳에서 미혼모를 돕기 위해 자신의 아르바이트비를 후원한다는 옛된 개인후원자 하우정(17) 양을 만났다. 어린 학생들에게 배움을 한가득 얻고 돌아온 보람된 희망의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본다.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의 특별한 후원

지은 지 50년은 족히 넘었을 한옥들 옆으로 실개천이 흐르는 고즈넉한 분위기의 동네에 자리한 학교. 이곳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다. 이곳에서 나눔 교육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의 미혼모 지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2학년 4반 학생들을 만나봤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매월 미혼모를 돕기 위해 반 전체 학생들이 1,000원씩 모금에 동참, 홀트의 '아이사랑공간' 후원프로그램을 최초로 시작했다. 용돈도 늘 모자랄 여고생들이 "미혼모 친구들이 학교에 계속 잘 다녔으면 좋겠고, 버스 한 번 안 타고, 매점 한 번 안 가면 되는 적은 돈으로 누군가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참 뿌듯하다"며 환한 미소로 고백하는 모습이 참 예뻐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시작한 하우정 양

이 특별한 학급의 특별한 후원자인 하우정 학생은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홀트에 매월 1만 원씩을 후원하고 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1 아이사랑공간 현판을 들고 있는 하우정 양.
2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이사랑공간 후원 학급 2학년 4반 친구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좀 여유가 생긴 돈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싶어 시작하게 됐다고 수줍게 말하는 그녀.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알바를 하게 돼서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자신보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미혼모를 돕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홀트의 교육을 듣고 나서 '이건 진짜 남 일이 아니고 내 친구, 후배의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는 정말 도와줘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미혼모 친구들도 죄가 없고, 태어난 아기들은 더 죄가 없는데 편견 때문에 힘들어할 그들이 참 안타까웠단다. 훗날 친구들의 아기가 멋지게 자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 작은 보탬이나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되었고, 미혼모 친구들이 '이런 일을 겪었으니 난 끝났어'가 아닌 '이걸 잘 극복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하우정 양의 진심이다.

해외 어려운 나라들에도 더 많은 후원을 하고 싶어요

학교 친구들의 경우 하우정 양을 보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응원을 하게 됐고, 어머니 또한 늘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만 컸지 막상 실현은 하지 못하다가 딸 덕분에 나눔을 시작하게 된 경우다. 특히 2학년 4반 친구들은 나눔에 동참하고 싶지만 한편으론 망설이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한다. 후원은 한 달에 한 번뿐이지만 그로 인한 뿌듯함은 몇 년치인지 모른다고. 그만큼 그들의 마음은 보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졸업 후 취업을 하고 나면 지금보다 조금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에, 그뻘 보다 많은 기부를 하고 싶다는 하우정 양. 좀 더 손길을 넓혀 해외 기부를 하고 싶

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갔던 캄보디아 봉사활동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눔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나눔은 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녀. '내가 힘든데 누굴 돕고 내가 가난한데 누굴 도울까? 차라리 돈을 벌면 그때 후원하자'는 생각만 계속 했다면, 평생 나눔을 실천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그녀. 한 번 시작하니까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홀트에 후원하면서 미혼모 친구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됐다고 한다. 그런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는 것도 곧 나눔이고, 자신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나눔의 다른 이름일 거라는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녀는 미혼모 친구들이 '미혼모'라는 이름으로 차별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녀를 보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던 따뜻한 시간이었다. 한글

글_ 채성현 · 후원개발팀



아이사랑공간은?

아이사랑공간은 개인후원 이외에 식당, 병원, 학원, 카페 등 자영업자 및 학교 내 학급,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홀트아동복지회 정기후원 프로그램입니다.

※문의 : 02-331-7143

두 가족을 가진 조셉 그린의 기도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친가족을 만난 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일 것이라는 미국 입양인 조셉 그린(윤경민, 26세) 씨. 과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하루하루는 우리 자신만 결정할 수 있기에 이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했다는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제 이름은 조셉 그린, 한국 이름은 윤경민입니다. 1987년 저는 구순구개파열(Cleft Lip & Palate), 양막대 증후군(Amniotic Band)으로 9개의 발가락과, 혈관종(Hemangiomas) 등의 의료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의 삶이 시작부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죠. 제 친부모님도 이런 저를 감당할 수 없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홀트에 입양을 의뢰했습니다.

이 상황을 비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바로 같은 해에 저처럼 심한 구개파열을 가진 한국 남아아이를 입양한 미국 부모님이 제 사진을 보고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던 거죠.

그 분들은 저를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미래의 아들로 보았고, 전 1988년에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미국에서 전 무력무력 자랐고, 최고 의료진의 보살핌 속에 많은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들로부터 받은 충분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입양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셨고, 저와 형을 한국 식당에 데려가서 '감사합니다'란 말을 배우게 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특별행사가 있을 땐 학교에 한복을 입고 가 한국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야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나를 친가족에게 이끈 홀트 모국연수

2013년 8월 국외 장애인들을 위한 모국연수(Happy Together 2013)가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멀게만 느껴졌고, 그다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 삶은 미국에 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은 미국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생명을 선물로 준 친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 바람으로 모국연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의 연수 기간을 통해 저는 한국의 문화를 보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모국연수 기간 동안, 친부모님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에 방문한 곳 중 한 군데는 홀트일산복지타운이었습니다. 만약 저도 입양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자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제가 받은 사랑에 도취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받은 사랑을 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전 다시 이곳에 자원봉사자로 돌아오리라 결심했고 2014년 여름, 3개월간 봉사하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했지만 익숙한 틀을 벗어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국외 입양인들이 친가족을 만나게 될 확률이 낮다는 사실은 모국연수 기간에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친가족에게 보낼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친가족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놀라움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될 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수없이 많은 생각과 질문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망설임과 두려움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가족 또한 저를 하루 빨리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친가족이 선택한 입양이 제 생명을 구한 결정이었기에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두 가족을 가지게 된 나의 귀하다 귀한 삶

드디어 가족을 만나는 날이 다가왔고 만나기 1분 전까지도 크게 긴장된다 생각하지 않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족들이 안아줬을 때,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 방안에 눈물은 있었지만 슬픔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26년간 쌓아왔던 서로의 감정이 표출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꿈처럼 믿겨지지 않았고 아마도 그곳에 있던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할 말을 잊고 침묵이 흐른 뒤, 저는 가족에게 지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입양을 결정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친아버지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상대를 알아가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만남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조만간 친아버지가 살고 있는 포항에도 방문할 것입니다.

친가족을 만난 건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일 겁니다. 한국에 올 때, 제겐 훌륭한 하나의 가족만 있었는데, 떠날 때는 두 가족을 가지게 됐습니다. 과거만 돌아보고 살기에는 너무 귀한 삶이기에 우리가 과거에 내린 결정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현재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미래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Holt

글 _ 조셉 그린(윤경민)

◀ 중간에 조셉 그린(윤경민) 씨를 두고 시계방향으로 아버지·누나·매형·남동생

“친가족을 만난 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일 겁니다. 한국에 올 때, 제겐 훌륭한 하나의 가족만 있었는데, 떠날 때는 두 가족을 가지게 됐습니다.”



▲ 한국 가족들에게 미국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는 조셉 그린

● 사회공헌 ●

LIG그룹, 서울지역 위탁아동 의료비 전달 및 자원봉사 펼쳐



LIG그룹(대표 : 남영우)은 8월 27일 우리회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기로 하고, 서울지역 위탁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의료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의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 앞서 홀트일시보호소에서 LIG 직원들은 청소 자원봉사를 하며 우리회에 따뜻한 마음까지 보냈다.

삼성생명, 청소년 미술작품 공모전 시상식



6월 30일, 삼성생명(대표이사 : 김창수) 본사 1층 컨퍼런스홀에서 제34회 삼성생명 청소년 미술작품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삼성생명은 이날 시상식에서 예선에 참여한 1만 3천명 학생 한 명당 300원씩 적립해 마련한 기부금을 우리회에 전달해 참가 학생들에게 사회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쁘띠엘린, 미혼모 가정에 유아용품 기부



유아용품 전문 기업 뿌띠엘린(대표 : 이남진)은 6월 27일 2천 5백만 원 상당의 신생아 용품을 전달했다. 기부 제품은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유모차 담요, 유리젖병, 육조 등으로 구성됐다.

LIG손해보험, '365베이비케어키트' 관련 봉사 활동 펼쳐



5월 31일 토요일 LIG손해보험 임직원과 가족들이 미혼모자들을 위해 양육 필수품 한 달 분량과 2세기 복스에서 기부한 책이 들어 있는 '365 베이비케어키트' 포장 봉사활동을 펼쳤다.

● 본부 ●

김진아 홍보대사를 애도합니다



김진아 홍보대사가 8월 21일 50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영화배우 김진아 씨는 2004년 입양의 날 제정을 위한 거리 캠페인 참석, 2005년 홍보대사 위촉 등 국내입양 활성화에 앞장섰으며, 제1회 입양의 날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홀트 전 직원은 김진아 홍보대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 아파하고 삼가 고인을 애도한다.

홀트 대학생 해외봉사단 해단식 가져



우리회가 주최하고 안전행정부가 후원한 홀트 대학생 해외봉사단이 8월 22일 해단식을 가졌다. 봉사단원 16명은 지난 8월 2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봉사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 꿈과 희망지원 공동이캠프 '드림메이킹 프로젝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연간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과 희망지원' 사업의 일환인 공동이 캠프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문경에서 열렸다. 공동이들은 물놀이·승마·수상 자전거 체험·문경새재·석탄 박물관 관람, 농촌 들녘 나들이 등을 즐겼다. 특별히 선 홍보대사님이 직접 참가해 공동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만난 현재는 Present이고 당상은 귀한 선물입니다"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14 제2차 사례관리 실무자 워크샵 열려



7월 11일 클라이언트의 욕구, 감정중심사정과 사례관리계획 동의를 위한 워크샵이 우리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샵은 사례관리 실무자들의 열정적인 토론과 경기대학교 민소영 교수의 수퍼비전으로 이루어졌으며, 클라이언트를 위한 자원개발과 연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국외협력팀, 기관 담당자 방문



2014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미국협력기관인 Bethany Christian Services의 한국 프로그램 담당자 Alison Adema와 World Association for

Children and Parents의 담당자 Beth Kido가 변경된 국외입양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업무 협의차 우리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가정법원, 미국 대사관, 마포 클로버 등을 방문하고 담당 직원들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홀트장학생서포터즈 거리 캠페인



홀트장학생서포터즈 15명이 6월 28일 서울역 광장, 대전역, 대구 두류공원에서 거리 캠페인을 열고, 미혼모 문제와 미혼양육모의 어려움을 알렸다. 또한 저소득가정 교육비 지원을 위한 '꿈과희망지원사업' 홍보, '캄보디아 드림센터' 사업 소개, 결연후원아동 소개와 후원신청 등의 활동을 했다.

국외입양인과 가족들의 모국방문 이어져



6월 여름의 시작과 함께 우리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성장입양인과 양부모,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6월 20일 진흥문화재단 6명을 시작으로 1백여 명이 우리회를 방문했다. 입양인들과 가족들은 우리회 주요 기관 방문과 한국 문화 체험 등을 통해 모국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추억을 만들었다.

2014년도 상반기 대바자회 성황리에 마쳐



지난 5월 30일 우리회 직원 및 많은 후원기업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미혼양육모지원을 위한 나눔 바자'가 개최돼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바자회 수입은 미혼양육모자 지원에 쓰이게 된다.

● 지방사무소 ●

강원사무소, 봄내그림향기



그림이 좋아 함께하게 된 춘천지역 부녀자들의 그림 모임 '봄내그림향기'가 9월 12일 제10회 정기전을 열어 홀트강원사무소에 작품을 기증하고 후원금을 마련했다.

인천사무소, 2014년 제3차 예비 양부모교육



7월 24일 홀트인천아동상담소 교육실에서는 12가정(21명) 예비 양부모님의 부모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홀트인천상담소 손운실 소장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홀트 한사랑회 강은미 회장의 입양 사례발표 및 토론과 그 외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에 관한 정보 특강이 이뤄졌다.

부산사무소, 특별한 후원 '홍유건 돌 기념 후원'



홍유건 아동이 돌을 기념하며, 6월 16일 후원금을 전달했다. 유건이네 가족은 2009년 첫째 '홍재민' 아동의 돌 기념 후원을 시작으로 동생 '홍유건' 아동의 돌을 기념해 두 번째로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

원금은 보호 중인 아동들의 양육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

홀트일산복지타운, 2014 다운캠프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은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존슨앤존슨과 동아오츠카의 후원으로 3일간 제주도로 다운캠프를 다녀왔다. 참여했던 모든 생활자들은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올레길 체험과 해수욕장 체험을 하고 돌아왔다.

홀트일산복지타운, '영혼의 소리로' 소록도 공연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소리로'가 그간 사랑에 힘입어 이에 보답하고자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동행... 그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전라남도 소록도에 위치한 중앙교회와 대전 대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공연을 다녀왔다. 공연을 관람한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 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FunFun 여름캠프



아동통합지원팀에서는 7월 28일 30일까지 초·중·고등부 20명의 이용자들과 함께 에버랜드에서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캐리비안베이에서는 물놀이를 즐기고, 에버랜드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는 조별 미션활동을 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또래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 및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기념행사



7월 23일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달서구와 우리회를 대표하는 200여분의 내빈과 지역주민이 참여했고, 테이프커팅, 기념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홀트일산복지타운의 '영혼의 소리'로 홀트 장애인합창단이 먼 곳에서와 축하공연을 선보여 더욱 감동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14년 제10회 홀트자원봉사국토대장정 실시



지역의 청소년과 함께 7월 24에서 25일까지 제 10회 홀트자원봉사국토대장정을 실시해 복지관에서 팔공산 깃배이까지 총 24km구간의 국토대장정을 달성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자원봉사까지 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 노력하고 서로 의지하고 봉사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실버카페 '마실' 개소식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시장형사업단의 일환으로 실버카페 '마실'을 복지 1층 로비에 마련하고, 8월 27일에 개소식을 가졌다. 앞으로 실버카페를 통해 좋은 커피 및 음료를 제공해 지역주민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제6회 보훈가족 위안잔치



6월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수영구 내 보훈단체 회원 및 가족을 위해, 민요공연과 푸짐한 음식들을 마련한 위안잔치를 열어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 미혼모자시설 ●

고운돌, '아름다운 숲태교'



6월 26일 고운돌 가족은 (사)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주최하고 중미산자연휴양림에서 진행한 '아름다운 숲태교'에 다녀왔다.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꽃과 나무열매, 나뭇잎들을 보고 듣고 만져봄으로써 햇빛의 태아와 하나 되고, 곧 태어날 아기에게 훌륭한 엄마가 되었다 다짐했다.

대구클로버 개원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대구 클로버가 7월 23일 개원했다.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가 입소 가능하며,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사회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름뜰, 입소자 검정고시 합격

아름뜰에서는 입소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임신 및 출산으로 학업이 중단된 입소자들의 검정고시 응시를 지원하고 있는데, 8월 6일 고입 검정고시에 응시한 입소자 1명이 합격의 영광을 안게 됐다. 앞으로 상위 학력 검정고시도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 예정이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2014 서울시 예비부부교실 '우리 결혼할까요?'



서울시의 지원으로 6월 21일과 28일,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을 통해 결혼의 의미,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재무 계획과 결혼 체크리스트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결혼생활 형성을 도왔다.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새살마을연구원 및 삼성생명과 함께하는 임신부부교실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새살마을연구원 및 삼성생명과 함께하는 임신부부교실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임신부부 20쌍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임신부 및 태아 건강 등을 주제로 예비부부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빠랑 노는 토요일 - 똑딱이 아빠'

8월 23일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프로그램 '아



빠랑 노는 토요일 - 똑딱이 아빠'를 진행했다. 총 25가정(총 66명)과 함께 원목시계 만들기를 하며,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규결혼이민자 한국문화 배우기'



추석을 맞이하여 신규 결혼이민자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자 9월 3일부터 한복입기 예절 교육, 송편 만들기, 전통게임대회 등을 통해, 우리 명절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홀트심리상담센터,

동부교육지원청에 본 센터 사업 홍보



홀트심리상담센터가 5월 26일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의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에 초대됐다. 이날 교육에 우리회와 홀트심리상담센터의 사업을 비롯한 연계 내용들을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 전주영아원 ●

신나는 여름캠프

7월 8일 본원 아동 10명이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한 대명리조트 아쿠아월드로 신나는 여름 캠프를



다녀왔다. 생활하던 장소를 벗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 체험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은 뜻깊은 시간이었다.

● 어린이집 ●

마포어린이집, 부모 참여 수업



6월 14일 아이들과 아이스크림, 치즈 만들기를 함께하면서, 아이들은 부모님, 친구들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움을,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성장한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중동어린이집, 파주 모산목장견학



유아반 어린이들은 6월 11일 파주에 있는 모산목장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송아지 우유 주기, 젖소 건조 주기, 젖소 우유 짜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낙농체험을 하며, 어린이들이 성장 발달에 중요한 우유를 더 잘 마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홀트어린이집, 부모님과 함께하는 물놀이



7월 22일 원내 수영장에서 < 2014 부모님과 함께

하는 Summer Cool Festival 물축제>가 열렸다. 부모님과 아이들은 물놀이와 게임을 즐기며 시원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었다.

● 전국후원회 ●

강원후원회, आय회



강원후원회(회장 : 신명숙)는 6월 18일 양구 포시즌 펜션으로 1박 2일 आय회를 다녀왔다. 이번 आय회를 통해 홀트아동을 위한 모금행사 방안을 모색해 10월에 바자회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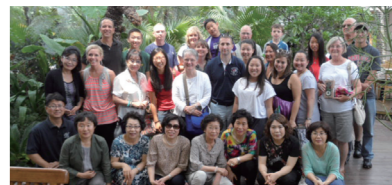
광주후원회, 친목 위한 단합대회 가져



광주후원회(회장 : 김은숙)는 지난 6월 19일 전남 곡성군 오곡면에 소재한 기차마을에서 2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친목을 위한 단합대회를 가졌다. 보물찾기, 장기자랑 등을 통해 신규 회원들과 서로 연대감을 형성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는 계기가 됐다.

대전후원회, 미국입양가족 모국방문단

대전 방문 시 오찬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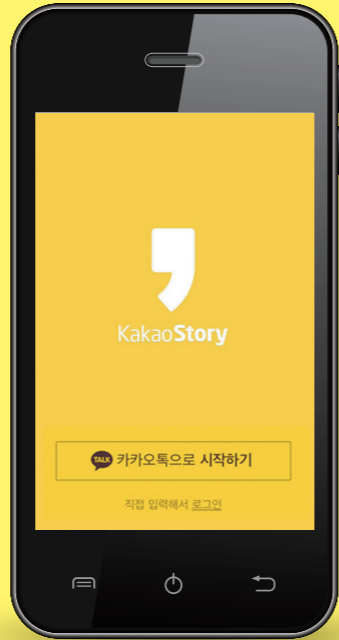


대전후원회(회장 : 최진실)의 초청을 받은 미국 입양가족 24명이 6월 30일 금산 하늘물빛정원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후원회는 서로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카카오스토리 친구가 되어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카카오토리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친구 등록 방법
카카오스토리에서 ID : prholt를 검색한 후 친구 신청 클릭!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4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동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반응형 홈페이지 9월, 새단장 오픈!



New!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가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반응형 홈페이지 형태를 도입해 9월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반응형 홈페이지란 어떤 환경에서도 접속유저에게 최적화되어 보여지는 웹환경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보다 쉽고 빠르게 홀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고객 곁의 든든한 희망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힘내’ 라는 백마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게 더 든든한 법이죠
LIG손해보험 LC들도 같은 생각으로
늘 고객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희망이 언제나 고객 곁에 머물도록
저희 LIG손해보험 LC가
55년 희망노하우로 함께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일생까지!

희망파트너 **LIG** 손해보험



LIG손해보험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나눔 기업입니다.
후원상담 1899-0923, www.holt.or.kr